행복 학교 위한 다양한 노력

용현중 '용현가족 한마음 잔치'

용현중학교(교장 유오영)에서는 '용현가족 한마음 잔치'를 학생, 학부모, 교사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30일부터~10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용현가족 한마음 잔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복누리정책추진학교와 남구교육혁신지구 참의, 공감 교육과정 사업지원으로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실시 목적에 맞게 사전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 희망을 조사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됐다.

첫째 날에는 사제동행 삼겹살 파티를 통해 소통, 공감의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시간에는 학생회 주관 '행복토론' 시간을 가졌다. 박지환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행복한 골든벨'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꿈·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토론을 통해 3학년 이윤재 학생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선후배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 학생들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으로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 스포츠 활동 증진 등 다양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협의 발표를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했다. 다른 모둠에서도 적극적인 발표로 행복은 각자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공감했다.

둘째 날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용현가족 한마음 문학산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문학산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 사진경연을 실시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공유해 다같이 문학산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녀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좋았으며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유오영 교장은 "이번 용현가족 한마음 잔치를 통해 학생들의 끼와 끼를 발산할 수 있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성 및 창의적 교육력이 강화된 이번 행사가 지속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안용섭 기자 ays@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인천동부초 학교사랑친구사랑 1박 2일 캠프 운영

인천동부초등학교(교장 김양일)는 9월 30일부터~10월 1일까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친구사랑 1박 2일 캠프를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 학교사랑 친구사랑 1박 2일 캠프는 첫째 학생들에게 단체 생활을 통해 서로 돕는 협동심을 기르고 사회 적응력 및 창의력 을 신장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둘째 학생들에게 가정을 떠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립심을 기르고 친구를 배려하며 함께 활동함으로써 친구의 소중함과 친구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시설물과 학교의 인적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소중함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사랑친구사랑 ○× 퀴즈, 친구들과 협동해 미션 해결하기,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특히,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을 최승호 교감이 직접 진행해서 친근함과 웃음을 마음껏 선사해줬다. 평소에 뛰어난 유머 감각과 말솜씨를 갖고 있던 최승호 교감 덕분에 아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만들었다.

교실로 이동한 후에는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소감도 작성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차분한 시간도 가졌다.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은 "캠프 참여를 통해 숨겨왔던 자신의 끼도 발산하고 담임 선생님 및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애교심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매우 만족해했다.

안용섭 기자 ay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섭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서 생활화 계기 됐으면…"

남인천여중, 도서관 행사 일환 독서골든벨 대회 개최

남인천여자중학교(최계열) 9월 22일 15시 50분부터 17시까지 강당에서 도서관 행사로 80명의 퀴즈 도전 학생과 200여 명의 응원단 및 교사들의 열기 속에 '2016년 독서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퀴즈 선정 도서는 10월 24일 작가 초청에 연계해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로 박상률 작가의 작품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밥이 끓는 시간', '방자 왈왈' 등으로 선정했다.

퀴즈 도전 팀은 2인 1조로 40팀이 출전해 쾡쾡하고 긴장된 퀴즈대회가 이어졌고, 패자 부활전을 거쳐 다시 도전하게 된 학생들의 표정과 응원단의 함성은 골든벨 퀴즈를 더욱 재미있고 활기차게 했으며, 주변의 꽹과리와 장구가 응원의 함성이 주변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평소에 책 읽는 습관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출전했고, 독서 골든벨의 퀴즈를 푸는 한순간이 독서의 힘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독서 골든벨의 도전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은 내년에 독서 골든벨을 울리겠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아 다짐을 했다.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이 책을 읽는 기회가 된 것 같다는 교사들의 평이 있었고,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행사를 통해 독서의 힘을 기르고, 나아가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교감선생의 개회사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량이 늘기를 기대해 본다.

안용섭 기자 ays@

사법부의 역할 자세히 알다

원당중, 자유학기제 Wondang Lawschool반 인천지방법원 체험학습

원당중학교(교장 고경수)에서는 지난 9월 28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반인 'Wondang Lawschool'반 1기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지방법원으로 체험학습을 떠나 현장에서 직접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원당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반인 'Wondang Lawschool'반은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체험학습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지방법원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번 체험은 법원 견학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실제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사법부가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Wondang Lawschool'반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법원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 내용을 알게 됐고, 실제 민사, 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알게 됐다.

견학 내내 진지한 태도로 임한 'Wondang Lawschool'반 학생들에게 이 체험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실제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고 준법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체험이 끝난 후 한 학생은 "재판을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 재판을 방청할 때는 긴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판사의 입장이 되어 판결을 내려 보기도 하면서 법관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게 됐다. 앞으로도 'Wondang Lawschool'반에서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가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공무원 학습 포털 '나라배움터' 새롭게 출발

범정부 통합 교육플랫폼으로 확대·개편

공무원 대상 이러닝(e-learning) 서비스가 '나라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6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제17회 공무원 이러닝협의회'를 개최하고 '나라배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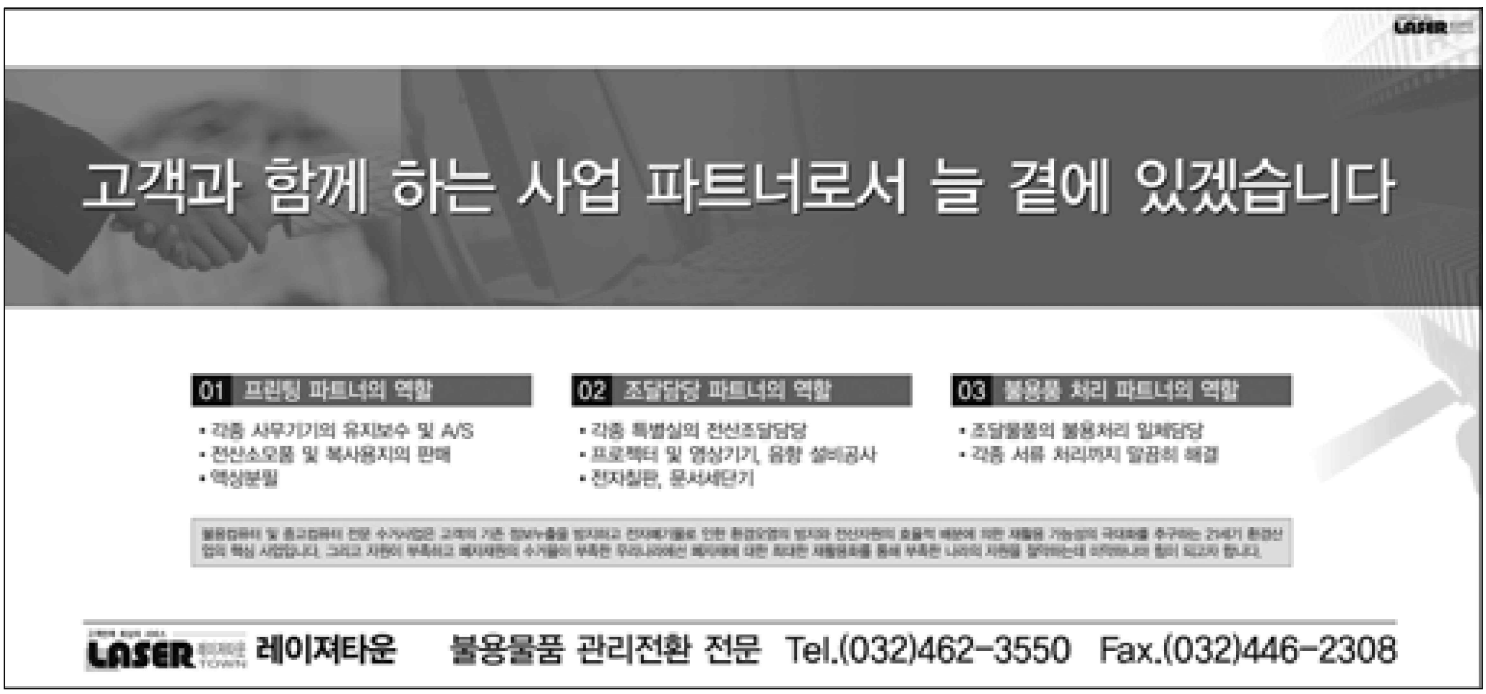
'나라배움터' 포털은 모든 이러닝 콘텐츠를 검색해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기존에는 학습콘텐츠를 보기 위해 각 부처의 사이트에 개별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포털에서 정부부처, 지자체 등 106개 기관의 950여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특히, 각 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표준적 내용, 방식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기간·인원과 관계없이 학습이 가능한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학습할 수 있게 했다.

학습과정별 사이버 튜터 등 통해 학습자의 질문을 해결하는 양방향 학습(소셜 러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옥동석 원장은 "나라배움터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이러닝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는 상시 학습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개시한 공무원 이러닝서비스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공직 전문성 강화 요구 등 자기개발수요가 증대 추세에 힘입어 학습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